1951년 8월
민주선전실

부스럭..
부스럭...

휙
첨벙
어느 자식이야?
누구얏?

에익!

땅

뿅

뿅

땅 땅

땅
땅
으악!
!
!

창우, 판이 글렀어. 물러나자구.
제길, 답답한 투전엔 꾁지만 나온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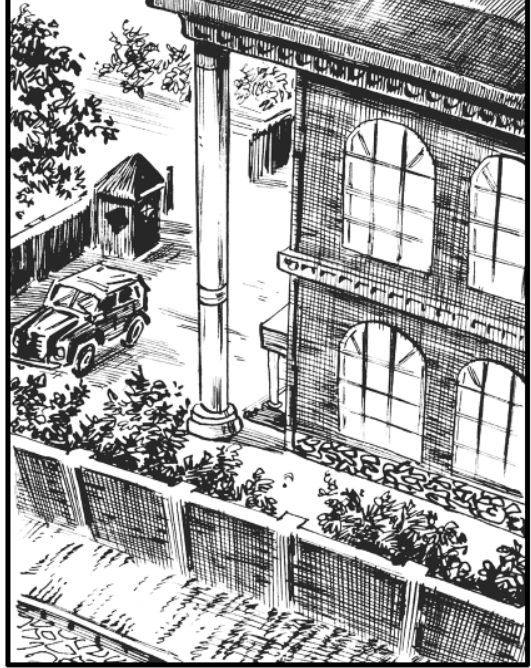
철수!
개자 식들!
콰앙!

탁!

?!
리신

추격하
랍니까?
위협사격만
하시오.

땅!
따르륵!

흥천군사회안전부
이 편지를 보내온 《조명란》의 통보에 의하면 적첩보대의 허프맨이라는 놈에게서 권태봉의 비적부대에 중요한 임무를 지닌 련락관과 무전기를 보낸다는 지령을 가진자가 부대에 도착했다오.
여기에 련락관 일행의 도착시간과 장소, 안전신호와 상면암호 그리고 마중나가는 비적놈들의 진출경로가 적혀있소.

부부장동지, 《조명탄》이 누굽니까?
《조명탄》은 도사회안전부 부부장을 하던 리신우동지가 권태봉부대에 침투시킨 공작원이요.
그런데 리신우동지가 갑자기 희생되다보니 그만 련계가 끊어졌소.
이 글을 보면 《조명탄》은 리신우동지가 희생된 사실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런것 갈구만.
《조명탄》과 선을 잇고 대담하게 작전을 벌려봅시다.
마침 허프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적후공작경험도 있는 동무가 한명 있소.

쏴아
철썩-

성공을 바라오. 서중위!
안심하십시오. 허프맨각하!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고튼대위가 남긴 배낭을 꼭 찾아와야 하오.

믿겠소.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15일밤에 내가 직접 마중하겠소.
알겠습니다.

철썩

좀 더 빨리!

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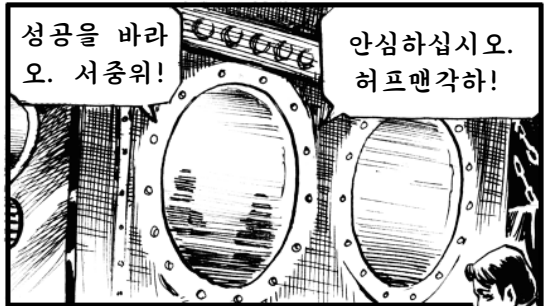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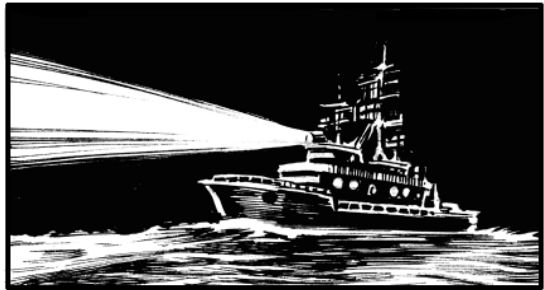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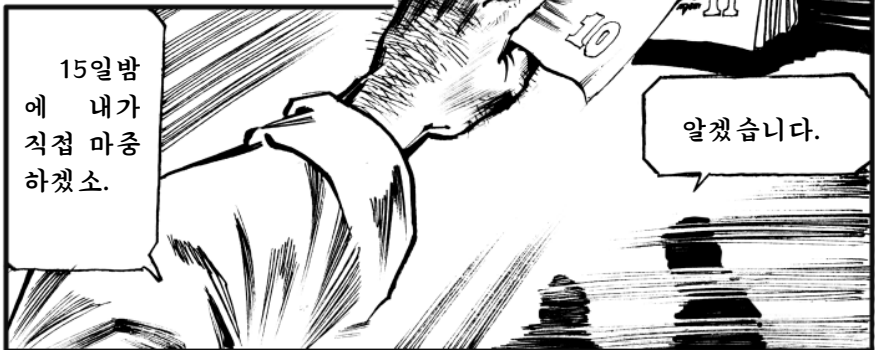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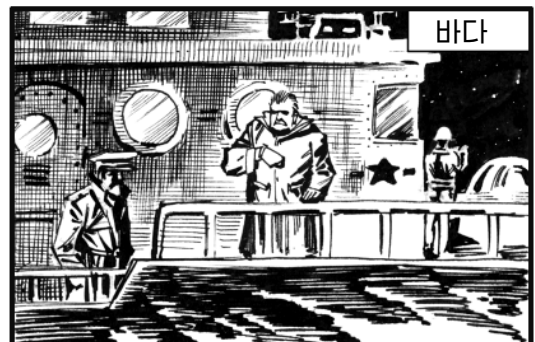
섯!

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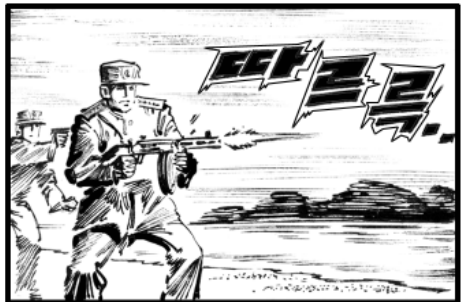
이거 야단났군. 좀 있으면 련락관이 올텐데…

글쎄말이요.

저길 보십시오.

신호탄!

아주 좋소. 이제 서중위가 고튼이 꾸려놓은 《지하십자군》과 《금련화》망의 명단을 빼오면 전선동부를 배후에서 타격하려는 우리의 작전이 또 하나의 예리한 단검을 가지게 될거요.

게다가 고튼의 짐속에 암여우갈은 제수 멜른과 조카딸년들한테 물려주기엔 아까운 재부까지 있다니까. …

그런데 릿지웨이각하의 하기 공세는 언제쯤 막을 열게 됩니까?

쾅!
땅!
뚜루루룩!
땅땅!
따르륵..
련락관이 걸려든게 아닐가?
제길, 우리가 제대로 마중하질 못했으니…

그런데 아까 오른 신호탄은 뭘가요?

글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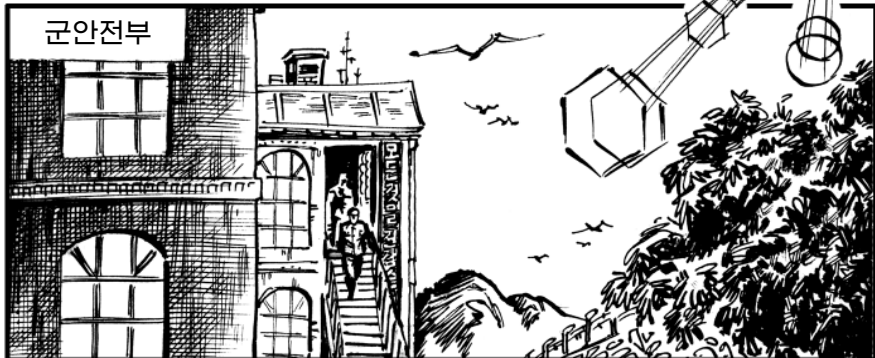
혹시 무사히 빠져나오는게 아닌지?

총소리가 우리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아?

땅

뚜루루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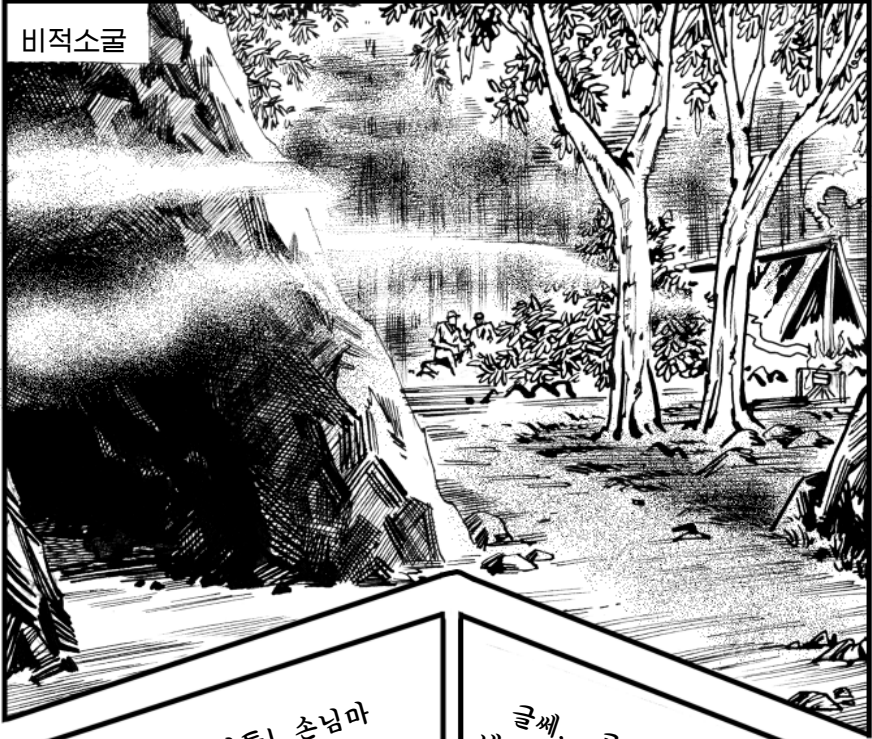
땅

총소리가 산쪽으로 멀어지는걸 봐선… 돌파했으리라고 믿읍시다.
서중위야 용감한 장교가 아닙니까?
운명은 사람의 든다고
하긴 용감한 편을 했지.
붕!
군안전부

《피리침》과 《조명탄》의 안전을 보장하자면 오늘 새벽에 벌어진 전투에 대해서 적들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오.

대책을 세웠습니다.

읍거리

일찍 나
왔군요.
향숙이, 수고해.
뭘요?
!
주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원, 애두.
참, 은심
언니,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어제 밤 바다가에서 간첩놈들을 잡았대요.
남쪽에서 들어오던 놈들이겠지?
그렇겠지요.
내무원들이 순찰하다가 맞다들었는데 두놈은 죽구 나머지는 도망쳤다더군요.
요즘 판문점에서 담판이랑 하는걸 보면 전쟁이 인차 끝날것 갈기는 하더니…
미국놈들이 쉽게야 손을 들겠어?

비적소굴
시라소니갈은것들! 손님마중하나 제대로 못해?
글쎄, 공교롭게 외통길에서 내무원들한테 걸려들었으니…

어떻게든 뚫고나갔어야 할게 아닌가? 다문 한명이라도!
그럴 형편이 어디…
닥쳐! 두 녀석 다 소대장들이라는게… 그래도 믿고 보냈더니…
지령이 다시 오지 않을가요?
이제 열흘을 기다리느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어떻게 회복된 련락선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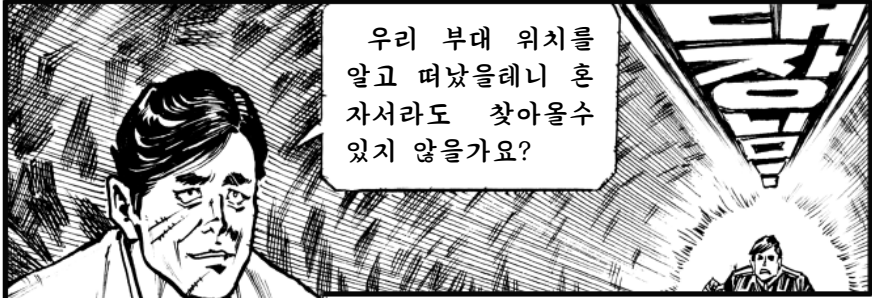
우리 부대 위치를 알고 떠났을테니 혼자서라도 찾아올수 있지 않을가요?
뭐야?
보초소에서 수상한 놈을 발견했답니다.

덮치자!

수작질 말고 손들어.
이게 버르장머리없이…
?
찌끈!
아이고!

야앗!
깍!
딱!
?!

얏!
다다닥
휘-익

찌끈!
탁!
빠각!
윽!
가만!

당신은 누구요?
허프맨각하의 특령을 받고온 본부련락관 중위 서수진입니다.
?
련락관, 그럼 인사나 놔볼가?
보아하니 권태봉중령님같은데…

반디불!

초롱불!

원래 이 인사야 바다가에서 했어야지요?
참, 면목이 없게 됐소. 내가 보낸 사람들이 적과 조우하는 통에 그만…
그런데 마중도 없이 어떻게 상륙했소?

안전신호가 없기에 우리도 되돌아 가려고 신호탄을 올렸는데 그만 적에게 발각됐습니다.
함께 온 두 사병은 전투도중에 죽고 저 혼자 살아 별수 없이 여기로 찾아왔지요.
음, 그렇게 됐군. 알겠소. 다 우리 불찰이요.
저건 무전기가 아니요?

예, 그런데 전투 때 탄알을 맞아서 쨰 살릴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길, 어쨌든 메고가야지.
참, 내 소개하겠소. 1소대장 백창우군과 2소대장 리승학군이요.
이 사람은 내 련락병 진평이요.
가기요.

이미 듣고왔겠지만 지금 부대형편이 영 말이 아니요.
원래는 허프맨 중좌가 이 일대에서의 게릴라전을 위해 품을 들여 조직한 부대가 아닙니까?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저런 떨거지들까지 끼워드는통에 오합지졸이 되고말았소. 게다가 무전기까지 고장나서 부득불 련락조를 몇개 무어 허프맨각하에게 보냈지.
소대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소대장은 흥봉면에서 치안 대장을 하던 사람이고 2소대 장은 남천에서 경찰노릇을 하다가 우릴 찾아왔소.
그렇군요.
동굴밖
이러단 이 산 속에서 싹 굶어뒈지고말겠어.
후-
그러게나 말이야.
무슨 개수작들이야?
저자식들이?

망할
자식들.
감히 군기를
흐리려들어?
적
적
윽!
소대장이나 하는
주제에…
흐흑

동굴안
무전기를 보내준다기에 몹시 기다렸는데… 참 아쉽소.
그런데 부대에 스파이가 박혀있는게 아닙니까?
내무원들이 우릴 다 마중나왔으니 말이요?
글쎄… 아직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건 그렇고… 허프맨중좌는 어떻게 지내오?
아마 그의 금발머리가 나때문에 퍽 희여졌겠지?

허프맨각하야 금발머리가 아니라 갈색머리지요.
참, 그렇지…

작년 겨울 원산에서 허프맨씨와 작별할 때도 브란디를 함께 마셨지.

그럴리 없겠는데요.

허프맨중좌는 이런 센 술을 입에 대지 않던데요. 늘 포도주만 마시더군요.

그렇던가?
맞아, 이놈의 머리가 제길…
하하…
자, 상봉을 기념하여!
쨍강!
쭈욱!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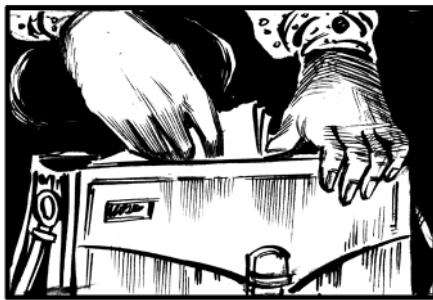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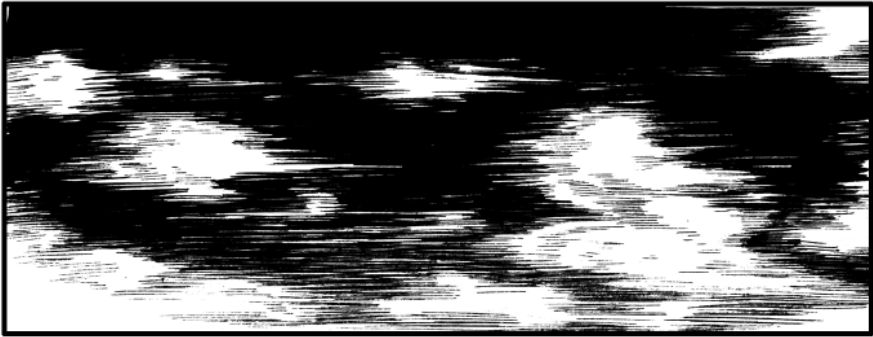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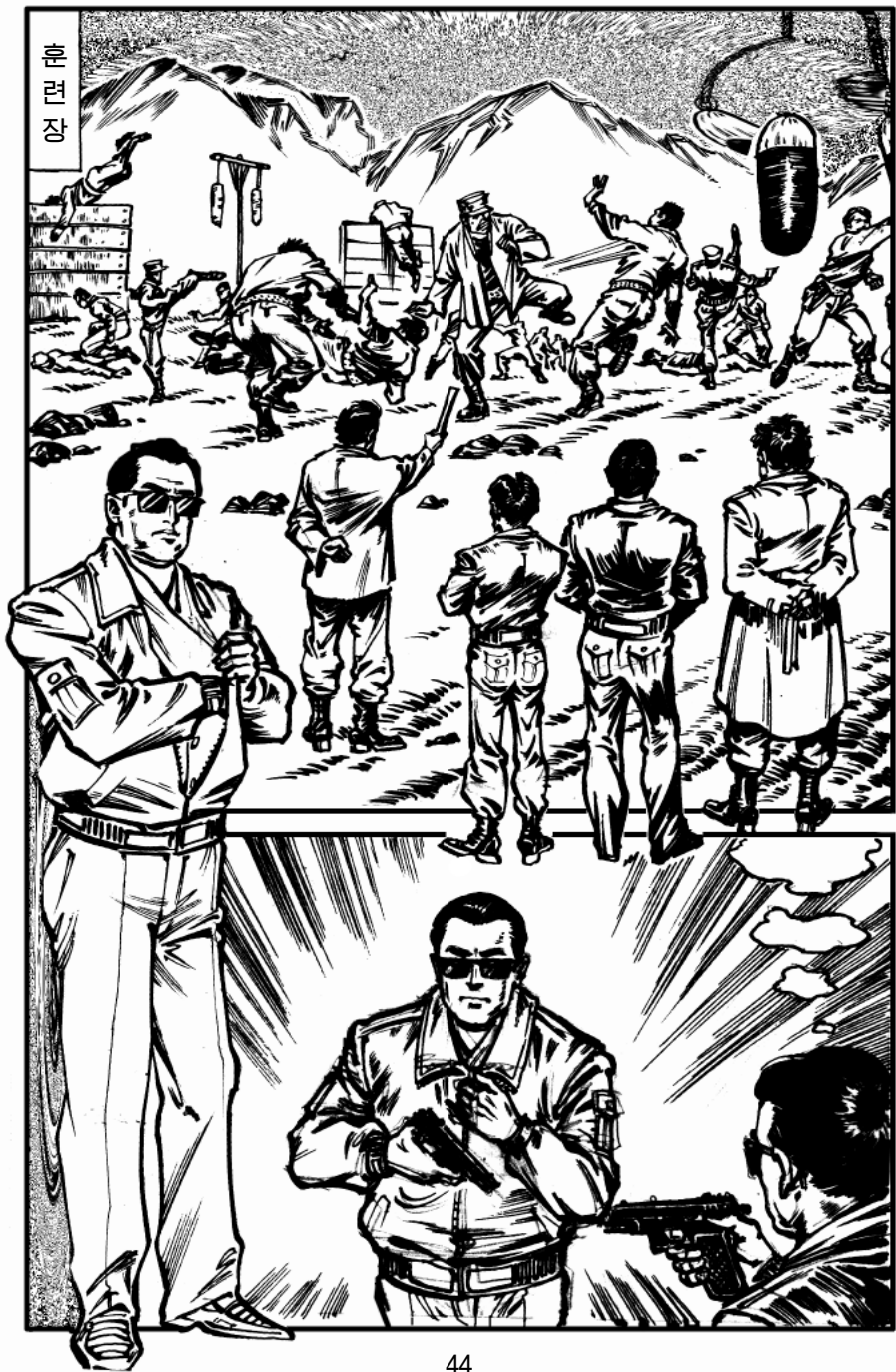
소비조합상점
참, 은심언니, 원산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건 무슨 사진들이야?
중학시절에 찍은거예요.

가운데 있는 청년이 참 잘생겼구만.
조경준이라구 창평에서 교회부속학교를 함께 다닌 수재형의 청년이였는데…
왜놈군대에 끌려가다가 렬차가 전복돼서 그만… 잘못됐어요.
정말 안됐구나. 아마 마음에 두고있은게지?
아니예요. 그저 동창생이였어요.

무슨 생각에 그리 옴해있소?

우리 애들 훈련하는데나 가보지 않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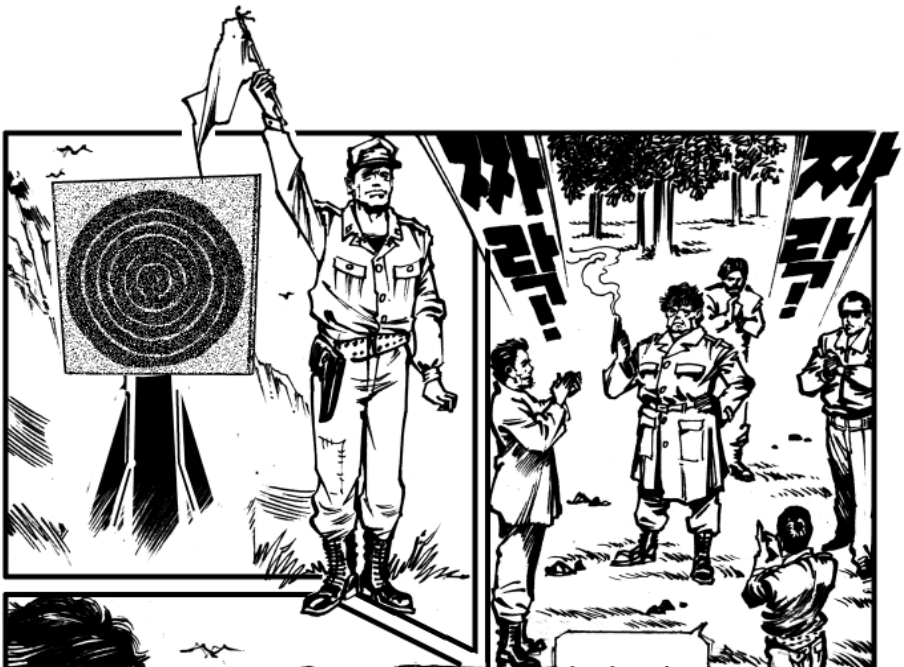
그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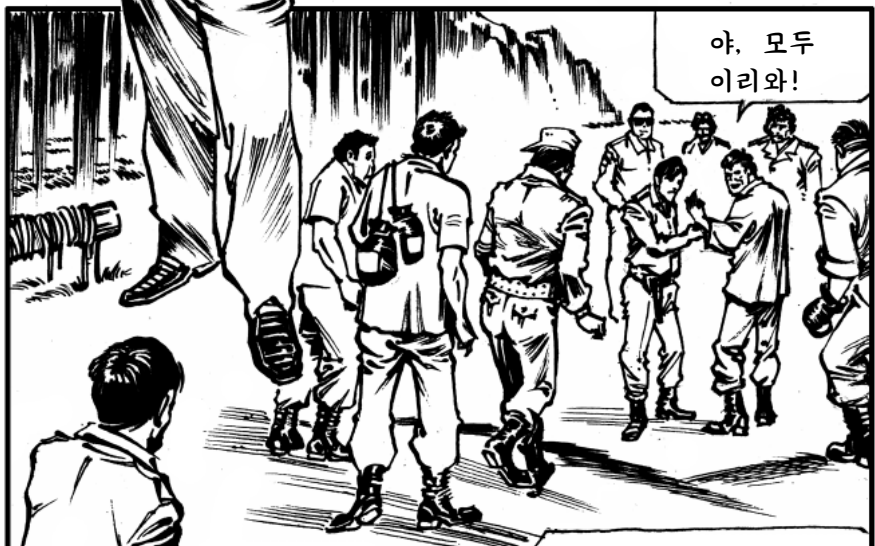
훈련장

며칠전
허프맨을 잘 안다구?
그렇습니다.
《조명탄》이 권총을 알아보아야 할텐데…
1939년 봄까지 저는 허프맨이 운영하는 교회부속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허프맨의 동생 고튼은 그때 황곡에서 금광을 경영했다고 했지?
예, 그러던 놈들이 해방후에는 둘다 장교복을 입고 남녘땅에 기여들었습니다.
우린 그 교활한 원쑤들과 기어이 결판을 내야 하오.

권태봉부대에 들어가면 《조명탄》을 꼭 찾아내야겠소.
그런데 접선방법을 알지 못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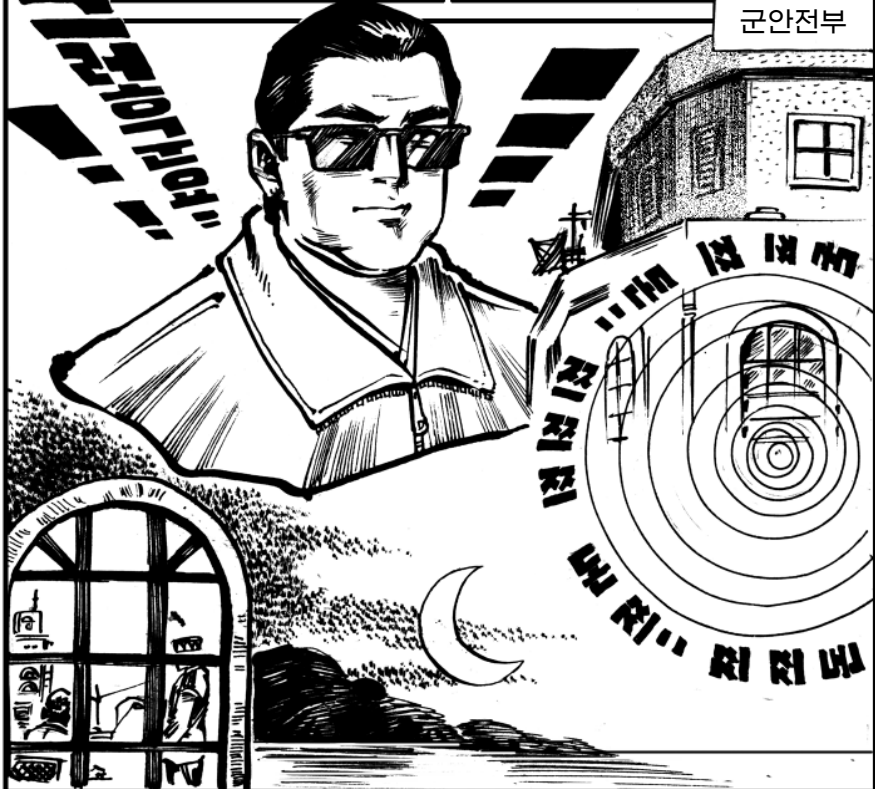
이건 리신우동지가 남긴 권총이요.

작년 가을에 이 권총을 리신우동지에게 선물한 사람이 바로 《조명탄》이라더군.
그렇습니까?

《석림사》 부근 황소바위아래에 우리 동무들을 대기시켜놓겠으니 도움을 받도록 하오.
알았습니다.
조명탄?
거 참, 권총이 멋있구만.
한번 쏴보자구.
그렇게 하십시오.
땅 땅

짜락!
짜락!
잘 맞는데…
솜씨가 훌륭합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데 헛방을 쏴서야 되겠소?
역시 중령님은…

그 권총이 련락관 님의것입니까?
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사병들한테도 보여주라구.
야, 모두 이리와!
중령님, 이젠 제가 받고 온 임무를 말씀드리지요.

전 중요한 배낭을 찾아가지고 저쪽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배낭? 그게 뭔데? 어데 있소?
뭘, 우물을 들고 마시겠군요. 그에 대해선 저 역시 모릅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여기 흥천부두에서 《금련화》라는 잠복첩자를 만나봐야 알게 됩니다.
금련화?
언제?…

래일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은 전투때문에 혹시 거기 분위기가…
흥천읍에 있는 내 친구를 통해 알아보자구.
친구요?
응, 오성필이라구 내가 고보시절에 사귀였던 후배요.
졸업후엔 그가 황곡금광에서 서사노릇을 할 때 몇번 다시 만난적이 있었지.

헌데 금년 초봄에 이 산일대에서 어물거리다가 우리 애들한테 잡혀오질 않았겠소?
그런걸 내가 살려줬지. 그때부터 우리 일을 썩 잘 도와주고있소.
군안전부

본부, 허프맨중좌앞. 무사히 상륙함 …
…해안에서 적과 조우했으나 손실은 없음.
임무수행후 다시 보고하겠음. 《S - 14》호
부부장방
부부장동지! 송신을 끝냈습니다.
수고했소. 여기 와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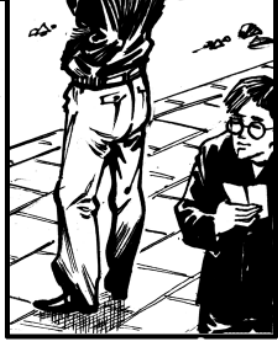
그 배낭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소.

고튼이란 놈은 황곡지구 위수사령관을 하다가 남으로 패주하던 도중에 지창리 부근에서 황천객이 됐다니까…
재진격때 황곡리일대는 인민군 15사의 작전지역이였습니다.

부부장동지! 제가 그 부대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당시의 전투상황을 자세히 알아와야겠소.

산속동굴
창우, 임자를 믿고 한가지 일을 맡길가 하네.
뭔데요?
래일 련락관이 읍에 내려갈 때 뒤를 밟아 봐야겠어.
진평이를 달려보내겠다면서요?

진평이는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그림자
구 임잔…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 이
말씀이군요.
바로 그거야. 난 원래 쉽게
믿지 않는 성미가 돼서…
요즘같은 세월에야
응당 그래야죠.
더구나 안
내자없이 찾
아온 손님이
아닌가.
지금쯤 진평이가 성필
이를 만났을가?…

읍거리
소비조합
역전

그러니 우연히 걸려 들었단 말이지요?

글쎄… 떠도는 소문을 들어봐선 그런것 갈구만.
그럼 됐수다. 이젠 갑시다.

가다니? 어딜?

목구멍이 컬컬해서 그러우다.

제길, 만날 때마다 성화로군.
그 돈 몇푼 아꼈다가 집을 살테요, 땅을 살테요?
질기기란… 소대를 감구나왔나?
진작 그럴것이지.
그런데 아까 그건 왜 물어보나? 혹시 저쪽에서 사람이 온게 아닌가?
그런걸 묻게 돼있소? 빨리 가기나 합시다.
산속
부대위치는 잘 잡았구만.
경치 또한 금강산 못지 않지요.

벌써 하루가 지났구나.
안전신호를 하오.

중위님, 안전 신호입니다.
좋다, 배를 대라.
절컥!
정신을 바싹 차려야겠다. 염라국행차엔 지름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반디불!
초롱불!
무사히 오셨으니 기쁩니다. 권중령의 부관입니다.

맞아주어 고맙소.

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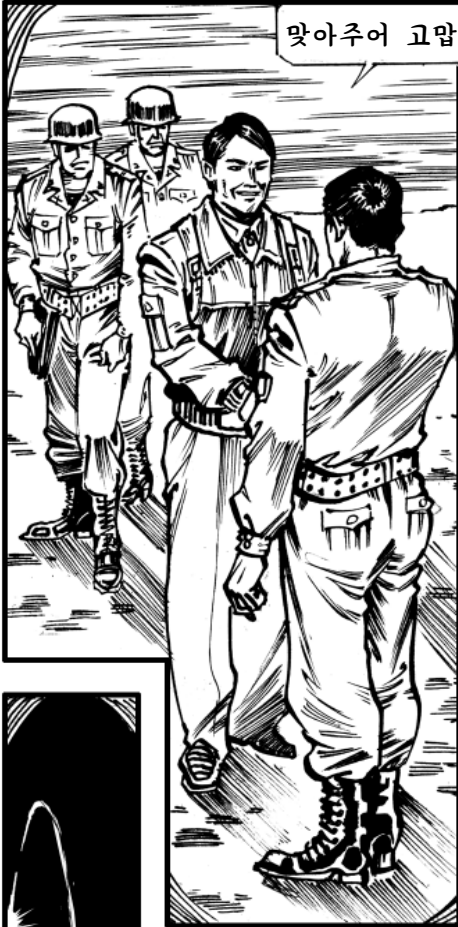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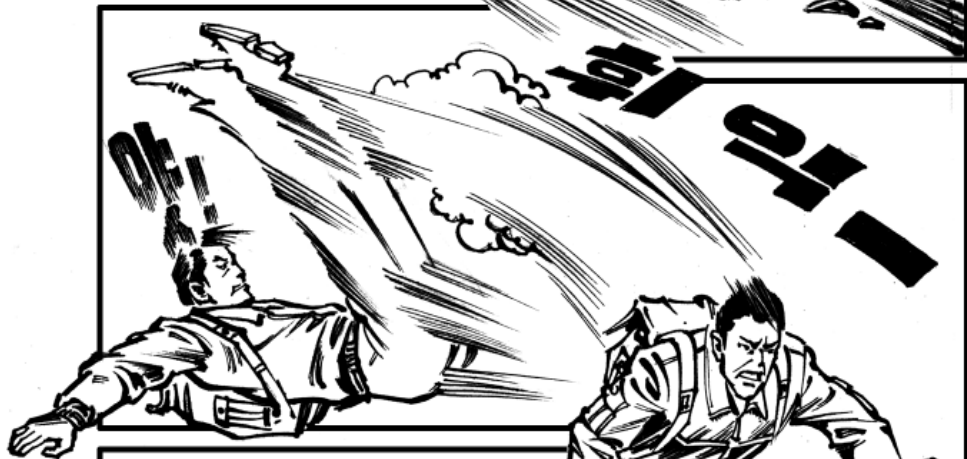
?!
손들어!

딱!
얏!
빽!
딱!
내무원이였구나.
툭

아
쿵!
휘익—
악!
빡
윽!
쩍!

으흐흑…

수고했소. 동무들!

계속하라. 시간이 없다.

작년말 《유엔군》이 퇴각할 때 고튼대위가 중요한 배낭을 가지고 남하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창리부근에서 인민군선견대와 맞다들어 고튼대위의 일행은 하루밤을 쫓겨다니던끝에 다수가 살상포로되였지요.
고튼은?
죽었습니다.
그속에서 겨우 살아온 켈리상사의 보고에 의하면 고튼대위가 배낭을 어떤 비밀장소에 감추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 유언을 허프맨중좌에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배낭을 1938년 봄 《금련화》와 낚시질솜씨를 겨루던 너럭바위밑에 숨겨두었다는거지요.

그건 허프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금련화》를 만나야…
배낭안에 무엇이 있는가?
첩보망명단과 하기공세작전에서 후방을 교란시키는데서 수단으로 될수 있는 중요한 《특수무기갱도략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략도는 태봉에게 넘겨주게 되여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허프맨을 찾아가는것입니다.
접선장소와 시간을 말하라!
매달 12일과 27일 정각 12시…

흥천부두에 있는 느티나무앞에서 《금련화》와 접선하게 되여있습니다.
저의 상면신호는 오른손에 이 시집을 들고있는것입니다.
배낭을 어떤 방법으로 남쪽에 보내기로 했는가?
저의 무전련락에 따라 허프맨이 15일 이 시간에 직접 배를 끌고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젠 계획대로 《총격전》을 시작하시오.
알았습니다.

《금련화》!
어떤자일가?
오성필의 집
에- 오래간만에
사람답게 먹었군.
뭘? 이쯤
이야?
이거 많지 않지만
넣어두게.
이러지
마시우.
홀아비살
림을 내가
돕지 못할
망정…

이제 우리 세상이 되면 자연히 빼겼던 집과 땅을 되찾을텐데…
그런걸 난 오형을 지금껏 벼룩이 뒤잔등에 기와집 지을 노랭이라고 욕했 댔수다.
용서하시우.
됐네… 헌데 이 사람, 분명 임자네한테 손님이 왔지?
난처하게 그건 왜 자꾸 묻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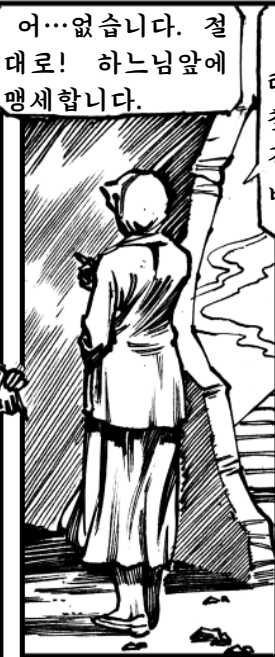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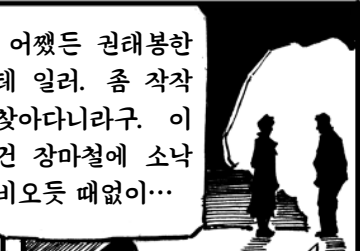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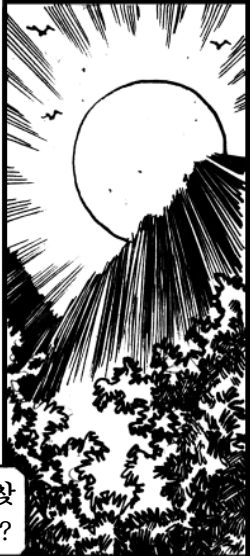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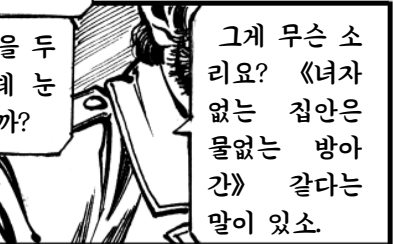
뭘 그러나? 나도 저쪽 소식이 궁금해서 그러는거지 다른게 있나?
에라, 이건 사실 비밀인데… 중요한 임무를 지닌 련락관이 왔수다.
어떤 량반인데…
량반은 무슨… 서수진이라구 해말쑥한 중위예요.
그렇군. 아마 읍에 내려올 작정인게지? 여기 형편을 꼬치꼬치 물을 땐…
아니, 이거 술 몇잔으로 누구 속을 뽑자는거요? 난 가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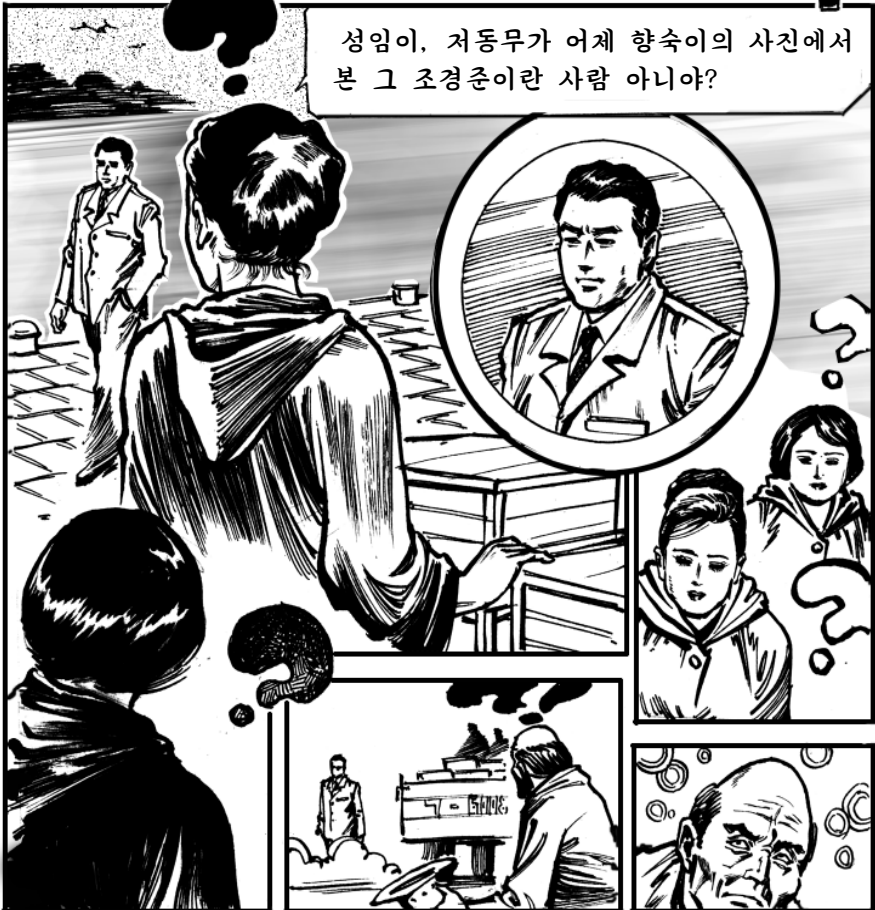
더 불들진 않겠네만 노여
움이 있으면 풀고가게.
설마 이
오성필이
를 안전부
끄나불
로 보지야
않겠지?
그럴리야
있소?
안녕히 계시우.
살펴가게.
산속동굴

아- 미국!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던것처럼 강한 존재가 결코 아니였어.
작년 11월 청천강반에서 미군 8사단장이 어떤 유명한 명령을 내렸는지 들은적 있나?
《각자는 능력껏 탈출하라!》고 한것 말입니까?
그래, 얼마나 멋진 명령인가? 결국은 전전선의 《유엔군》이 미 8사의 《모범》을 따라 능력껏 탈출했지.
게다가 오늘은 망신스레 정전담판장에 끌려나가?
쭈욱!

밥통같으니! 그것부터 얘기해야 할게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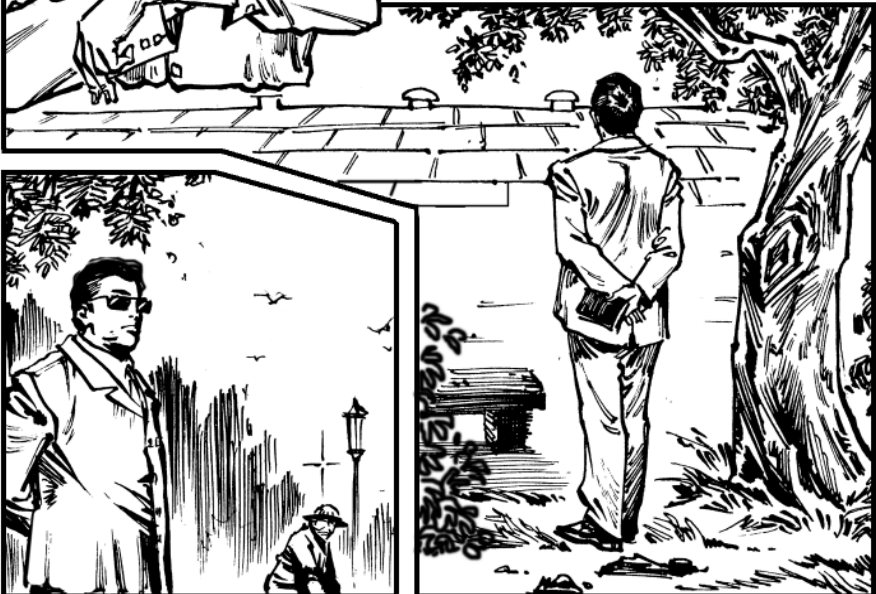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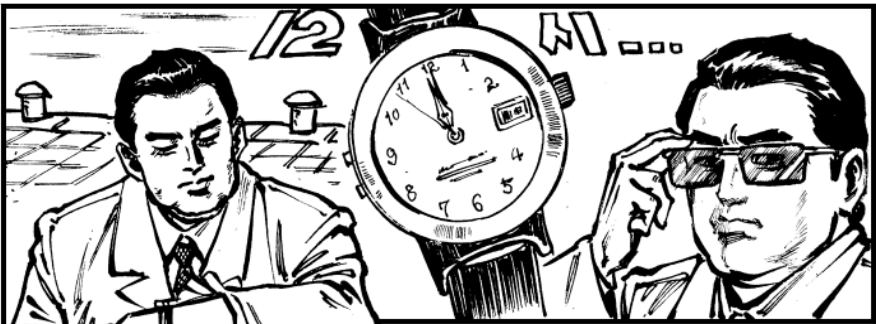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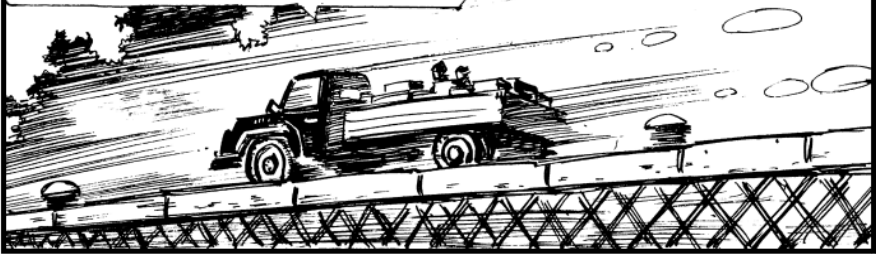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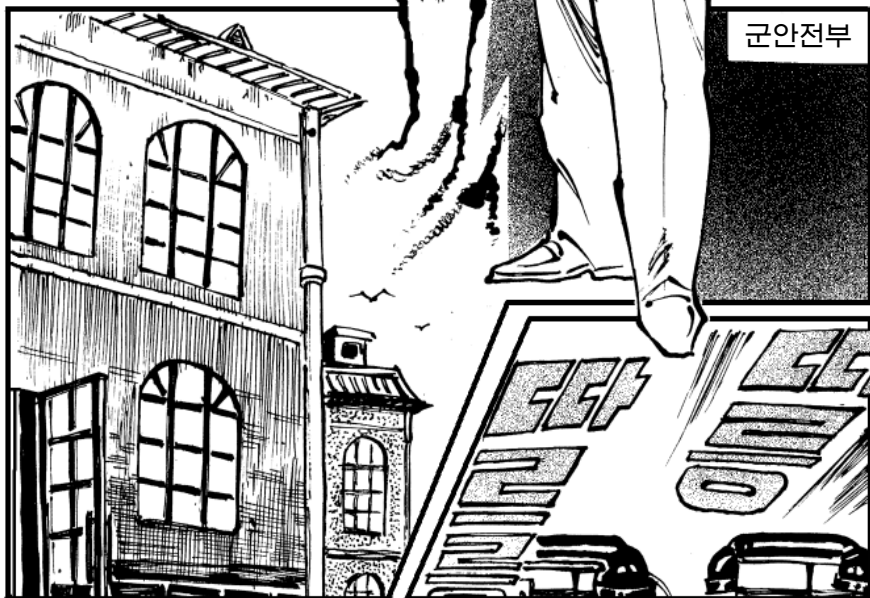
제가 그만…

예, 예.

어…없습니다. 절대로! 하느님앞에 맹세합니다.
어쨌든 권태봉한테 일러. 좀 작작 찾아다니라구. 이건 장마철에 소낙비오듯 때없이…
명심해서 조처하겠습니다.
됐다. 가봐!
예, 그럼…
혹시 나를 찾아온게 아닐가?

멋있구만. 증명서는 흠잡힐게 없겠지?
안심하십시오.
가자구. 내가 바래주겠소.
참, 아직 결혼을 안했는가?
사내가 큰 뜻을 두고 어찌 그런데 눈을 밝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녀자없는 집안은 물없는 방아간》 갈다는 말이 있소.

더구나 우리가 살아돌아가지 못하면 복수해줄 자식들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그럼 이만 헤여지자구. 잘 다녀오게.
걱정마십시오.
그쯤 휴식을 했으니 이젠 빨갱이들한테 인사나 해야지.
가서 의논해보세.

흥천부두
ㄱ-6008
자, 마지막상자가 올라갑니다.
류목사님, 어딜 가셨댔나요?
예, 룡서리에 사는 신도들을 좀 만나보고 오는 길이웨다.
땀이나 좀 들이구 갈가…

이젠 떠나봅시다. 난 오늘 하루종일 다
람쥐 채바퀴돌듯 해야겠는데…
성임이, 저동무가 어제 향숙이의 사진에서
본 그 조경준이란 사람 아니야?

12 시...

군안전부
따르릉
따르릉

최형철입니다. 아, 서장동무요?
부부장동지!《피리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접선자는 아직…
어떻게 하잡니까?
철수해야지.
흠뻔화!

소비조합상점
그럴수가 없어요. 언니가 잘못보았을거예요.
아니야, 암만 봐도 이 사람이 틀림없어. 그렇지, 성임이?
옳아요.
바다가에 가보렴. 혹시 아직 거기 있을지 아니?
설마 10년 전에 잘못된 사람이…

《금련화》가 어째서 나타나지 않았을가?
《피뢰침》을 철수시키고 권태봉일당부터 소멸해치우는게 어떻습니까?
허위무전으로 허프맨을 기만하면서 다음번 접선날자까지…
그러다가 놈들을 잘못 놀래울수도 있소.
…
《피뢰침》의 련락을 기다립시다.

괴이한 일이군. 접선 자를 못 만나다니…

어떤 작자인지?

이젠 어떻게 할 생각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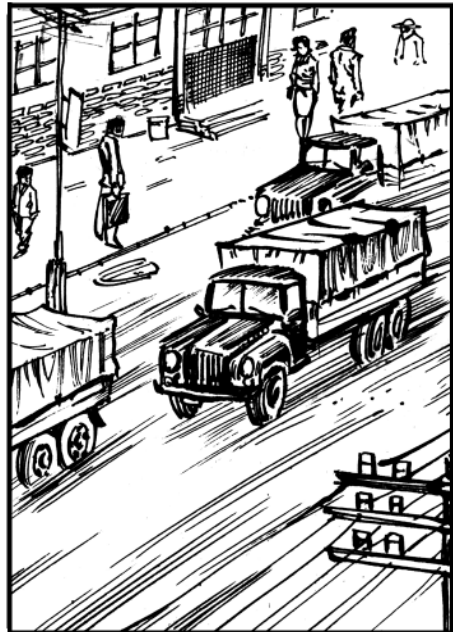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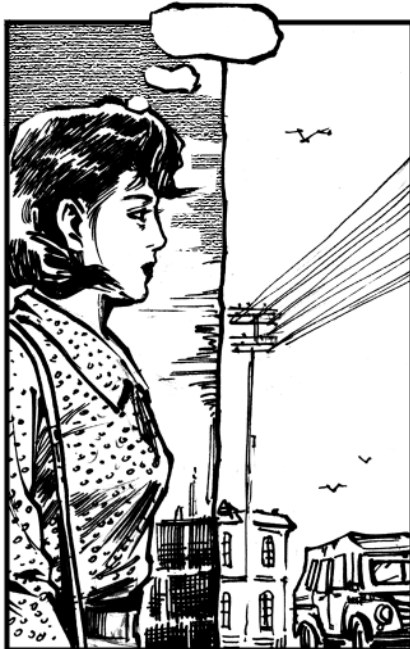
당장은 한잠 푹 자렵니다.

래일 아침엔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알겠습니까?

하하하, 배포가 참 유한걸?

조급성은 실패의 어머니라지 않습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경준아, 네가 죽다니… 아! 천벌을 맞을 이 왜놈들아, 내 아들을 살려내라.

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출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 오성필! 광복전 황곡금광의 경영주는 바로 고튼이였으니 혹시 련결되여있지 않을가?
졸업후엔 그가 황곡금광에서 서사노릇을 할 때 몇번 다시 만난적이 있었지.
그럼, 고튼의 첩자인 《금련화》와 오성필 사이는?
오성필! 그자의 줄을 밟아보자.

헉 헉
누구얏?
날 권태봉 대장한테 데려다주오. 친구가 왔다면 알거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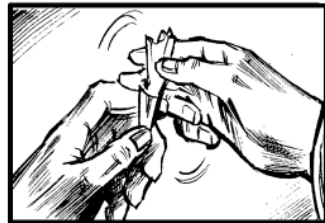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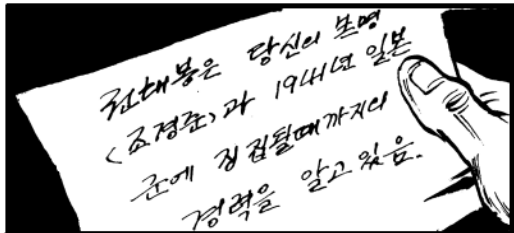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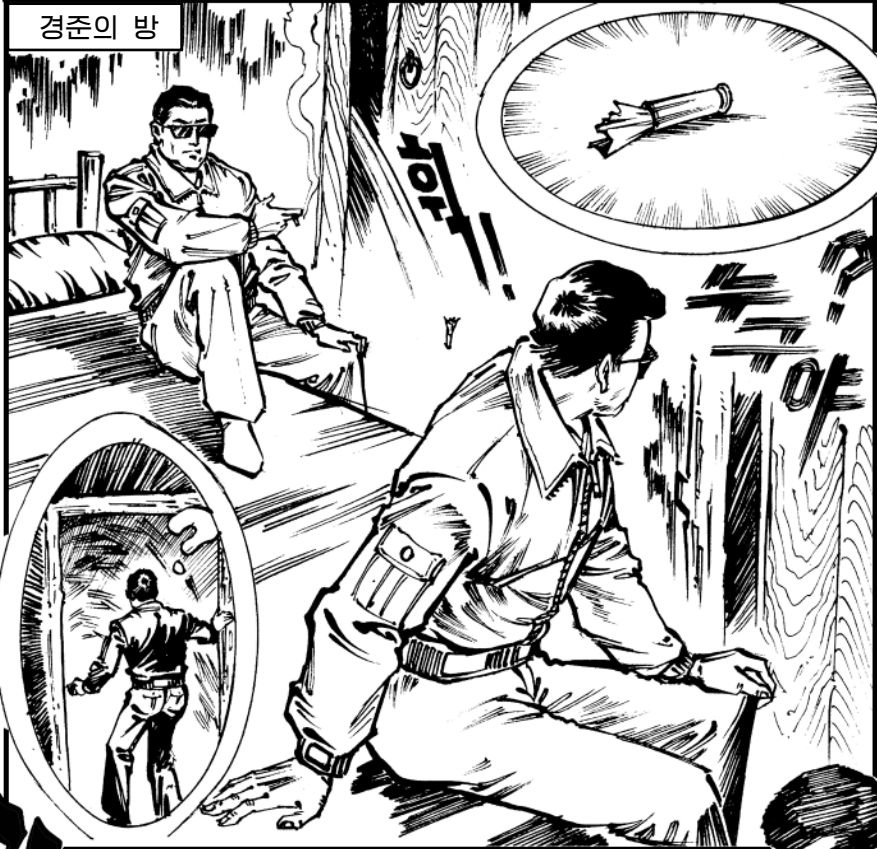
권대봉의 방
쾅
뭐야?
련락관이 가짜 인것 같다?
?
아, 이거 목소릴 좀 낮추시오.
《금련화》의 통보에 의하면 그 련락관의 이름은 서수진이 아니라 조경준일거라오.
소비조합상점 판매원을 하는 심향숙이란 년이 그자를 안다고 합디다.
창평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41년 봄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다는거요.
그담엔?
!
그후의 경력에 대해선 모르겠수다.

그러니 어쩐다?
그자가 빨갱이스
파이라면…

아직 속단하지는
맙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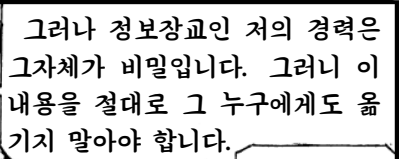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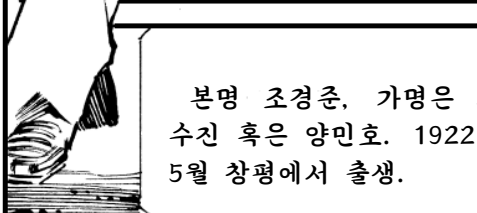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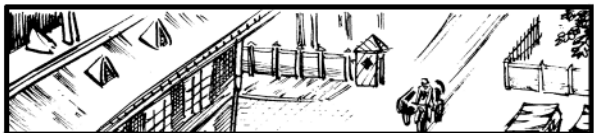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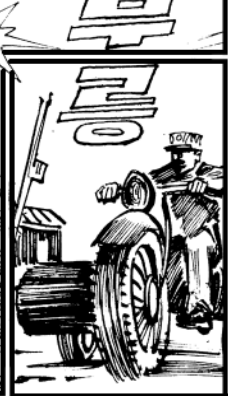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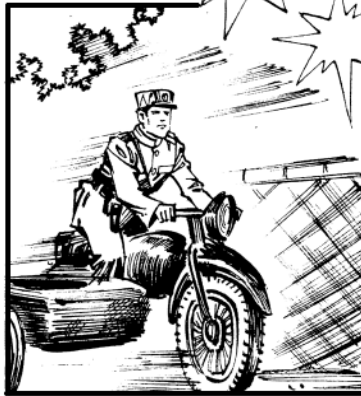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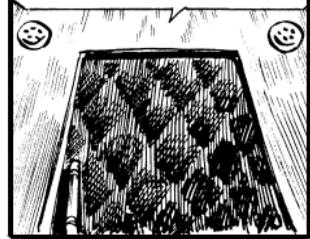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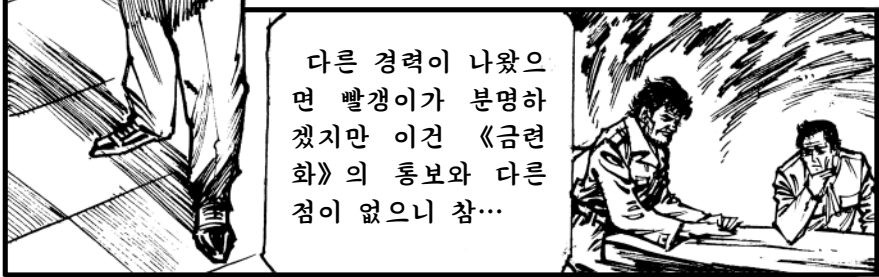
우선 그자더러…
그럴듯 해.

어느한 방

절컥!
만약의
경우에
는…

경준의 방
딱!
휙!
누구야?
?
?
쪽지편지?
김채봉은 당신의 본명
<조정준>과 1944년 일본
군에 징집될때까지의
경력을 알고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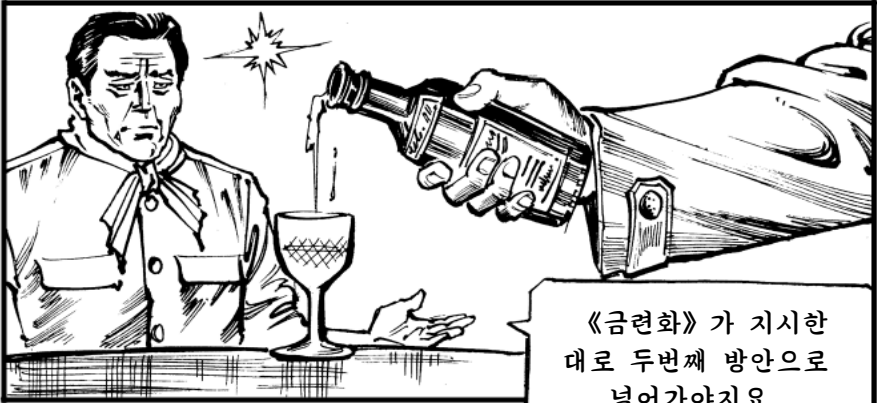
아! 동지!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임자가 그《금련화》의 부하일줄이야…
권대봉의 방
그래서 인간세상을 요지경이라는거지요. 지금껏 내가 권형에게 숨겨온걸 리해하시우.
이제 저 련락관놈을 어떻게 한다.
흠, 흠.

그거야 저놈의 속을 파헤쳐본 다음에 결심해야지요.
이젠 가서 서가인지 조가인지 모를 그놈을 만나봐야지.
헌데《금련화》가 누군가?
원, 권형이 그런걸 다 묻다니?
참 그렇지…
얼마후
거 쉬는데 안됐소.

뭘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경력을
알고싶은데 얘기
해줄수 있겠소?
중령님! 난 이 부대
에 온 손님인것만큼
주인의 요구에 응하
겠습니다.
그러나 정보장교인 저의 경력은
그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옮
기지 말아야 합니다.
좋소. 장
교의 명예
를 걸고 약
속하오.
본명 조경준, 가명은 서
수진 혹은 양민호. 1922년
5월 창평에서 출생.

1939년 봄까지 허프맨중좌가 설립한 교회부속중학교 다님.
1941년 학도병 징집.
중국전선으로 파송되던중 렬차전복으로 중상.
퇴원후 운남에 파견. 장개석 국민당 관할지역으로 탈출. 미군정보기관 입대…
부릉
부릉

흥천군안전부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소. 갔던 일은?
그 부대에서 전투기록도 료해하고 그 전투에 참가했던 군관동무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고튼이란 놈이 이 부근에 배낭을 숨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길에 황곡까지 들렸댔습니다.

그럴소?
잘했소.
그곳 인민들의 통보와 적기관복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튼이 비밀문건들과 함께 위수사령관을 하면서 략탈한 수십점의 금불이와 금광지질도도 그 배낭에 넣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날강도 같은 놈들!
산속동굴
다른 경력이 나왔으면 빨갱이가 분명하겠지만 이건 《금련화》의 통보와 다른 점이 없으니 참…

부르셨습니까?
음,
이리 오라구.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게. 어제 색다른걸 느낀게 없나?
글쎄요. 진평이가 늘쌍 불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종이쪼박같은걸 버린다든가 무슨 표나는 행동을 한것은 없고?

눈을 밝히느라
했지만 전혀…
됐네.
가보게.
예.
이젠 어쩐다?

《금련화》가 지시한 대로 두번째 방안으로 넘어가야지요.

두번째 방안이라…

뭘하오?
예, 잠이 오지 않아 바깥바람을 좀 쏘이느라…
내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소. 《금련화》와 련결된 선을 찾았단 말이요.
그게 정말입니까?

오성필이라구 일전에
내가 말하던게 생각나오?
안녕하십니까?
내 짐작
이 옳았
구나.
알게 되여
반갑소.

불행중 다행이군요. 중
령님이 친구 하나는 참
잘 두었습니다.

뭘… 하느님이 도운거지.
저녁 6시 30분 소비
조합상점에 가보게.
소비조합
상점에요?

응, 반겨맞는 사람
이 있을거네.
읍거리
책방
상점

소비조합?

소비조합상점
오늘 우리가 이렇듯 참혹한 전란을 겪고있는것도 다 하느님을 믿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류목사님, 이젠 상점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목사님의 신앙심을 모독하자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린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구요. 《하느님》이 그렇게 전지전능 하다면 왜 례배당을 페허로 만든 미국놈들을 가만놔두겠어요?
글쎄, 그거야…

그럼 전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믿는자에게는 힘을, 믿지 않는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자,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야지.

제 1 부 끝